

대지,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것과의 관계

Coexistence among the Site, Program with People



이 태 상 / (주)간삼건축소장 이사
Lee, Tae-Sang / Project Director
tslee@gansam.com

건축물을 설계할 때 주어지는 조건은 프로젝트마다 각기 달라진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건축물이 지어질 땅과 그 안을 채우는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해체하기도 하면서 설계는 시작된다.

대지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어 끝까지 프로젝트를 지배하곤 한다. 이때 대지의 의미를 지형, 향, 조망 등의 자연요소에 한하지 않고 도시, 주변건물, 지역사회, 땅의 역사, 지명의 유래 등의 유·무형의 것들과 그 땅의 사람들까지 버무려진 것으로 확장해본다. 의미가 확장된 대지에 건축물이 자리잡는다는 것은 그 형상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대지와 새로운 대지 사이에 건축물은 어떠한 매개체가 될 것인가? 건축이 대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좋은 건축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은 때로는 너무 견고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많은 수정이 되곤 하는데 건축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요소로 클라이언트가 맨 처음에 말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텍스트로 주어지는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각 프로그램간의 밀접함을 파악하여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몰입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기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해체하여 다시 조립해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프로그램을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려보지 않는다면 공허해지는 순간 한계에 마주친다. 이를 극복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조율하여 좋은 결과물을 찾아내는 것이 건축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두 개의 연수원 프로젝트

연수원은 특정 기업체나 단체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서 인재들을 만들어가는 곳이며 이것을 통해 기업들은 자신들만 기업문화를 형성해 나가 고자 한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정신적 중심이라 할 만큼 중요한 장소이다. 이것은 연수원이라는 건축물이 일반적이고 유형화된 교육시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과거의 연수원은 일반적인 학교와 같이 일반적인 지식전달을 위한 교육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 또한 예측가능하고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의 연수원은 창의성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방식이 시도되고 건축공간 또한 이에 대응하여 변하고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두개의 프로젝트중 하나는 과거의 연수원을 물리적인 틀 안에서 몇 개의 개선 및 더함을 통해 현재의 교육프로그램과 사용자의 변화된 요구에 맞게 바꾸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과거 연수원의 프로그램중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A그룹 연수원 리뉴얼: 과거,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과거의 기억을 살리자’는 컨셉으로 진행된 ‘A그룹 연수원 리뉴얼’은 리모델링과 함께 증축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인 까닭에 기존 건축물이 대지나 프로그램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였으며 기존 현황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속에서 시간을 가지고 축적된 가치를 발굴해내고 현재와의 차이 속



A그룹 연수원의 전체 모습

기존 연수원은 십여개의 건축물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사지인 대지의 현황에 순응하여 여러 레벨을 이루며 군집의 형태로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건축물 또한 이러한 배치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 중 사용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몇 개의 건축물은 금번 리모델링시 철거되었으며 옥외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에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현장에 도착하여 답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특유의 붉은 벽돌과 녹색으로 부식되어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동판 지붕의 건물들이 나지막한 산자락의 끝부분에 자리잡고 있었고 기존이 잘 보존되고 사용되고 있어 전통과 기품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하지만 20년이란 시간을 넘어 그 기능을 발휘하다 보니 기존 시설의 효율성과 편리함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조금은 낭만적으로 보이는 외관과 달리, 어둡고 낡은 내부환경은 건축의 전체적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건물의 쓰임새도 세월에 따라 변하여 현 시대에 맞는 공간을 필요로 했다. 개원 당시보다 사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교육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교육 또한 집체식 방법에서 각 구성성원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시대와 교육방식에 맞는 공간이 필요로 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리뉴얼의 여러 개념과 전제들을 설정하여 미래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었으며, 기존 시설의 확충과 보수를 통해 커뮤니티를 원활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시대가 요구하는 기능과 효율성도 새로이 갖추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들은 대부분 중정을 가진 클러스터형 평면을 가지고 주로 코너를 일부 열거나 필로티를 통해 내부 중정으로 공간이 연결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 중정으로 열린 부분이 상당히 적고 폐쇄적이다 보니 내재적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연수원이라는 곳이 과거에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충실한



교육관의 내부 중정 모습

기존 건물은 내부의 좋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외부를 단절시키는 육중하고 어두운 벽돌벽은 과감하게 전면이 투과되는 커튼월로 바뀌었다. 개방성 있는 공간 속에서 교육생이 과거보다 조금 더 대화하고 더 자주 외부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능을 다하면 됐지만 현재는 소통하고 통합하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서비스할 수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한 건축적 전략은 중정으로 시각적 개방성을 높여 이용자들이 좀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전체적인 건축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신축생활관 중정에서 보이는 입면

기존생활관이 중정으로 숙소가 면하는 공간전개와 다르게 복도를 배치하여 중정을 교육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했으며 투명한 입면 뒤로 4개층을 관통하는 계단을 두어 좀 더 활기 있는 공간 분위기를 조성했다.

유일한 신축 건축물인 생활관은 외형적으로는 기존의 질서를 따라 중정을 가지는 클러스터형의 배치와 재료, 경사 지붕의 외형, 지형에 자리잡고 주변과 소통하는 방법을 택했다. 외부 재료로 벽돌을 사용하였지만 중정을 만나는 방법이나 수직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여 기존건물과 구분지었다. 그리고 기존 숙소에 Reception공간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고, 편복도로 실들을 배치하여 공용공

국내(외) 학교시설 우수사례 소개

간이 중정을 면하게 하고 전면 커튼월을 설치해 공간을 밝게 하고, 주변의 산과 조경공간을 향해 열린공간이 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기업정신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용의 공간을 디자인했다. 외부의 경우 산과 조경공간을 향해 창을 열어 숙소 또한 휴식과 사색의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였다.

B은행 인재개발원 : 새로운 중심과 관계 맺음

이 프로젝트의 부지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도시공원의 끝자락이면서 멀리 서해 바다를 바라 볼 수 있는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었다. 기존 건축물들은 지형에 수직방향으로 선형적으로 배치되었었는데, 주어진 과업은 몇 개의 건물을 철거하고 3개층 규모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두 개의 교육공간을 새로 건축하는 것이었다.



변경 배치도

기존 숙박시설에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응하는 두개의 신축 동을 연결하면서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위요되는 공간을 형성하는 배치형태를 갖는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승하는 대지의 레벨에 따라 진입공간부터 곡선형의 도로를 따라 정상에 다다르면 중앙광장이 맞이하는 구성이다.



진입도로에서 처음 바라보게 되는 신축교육동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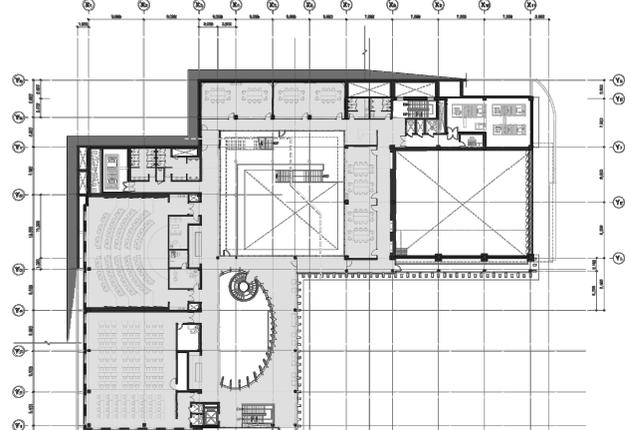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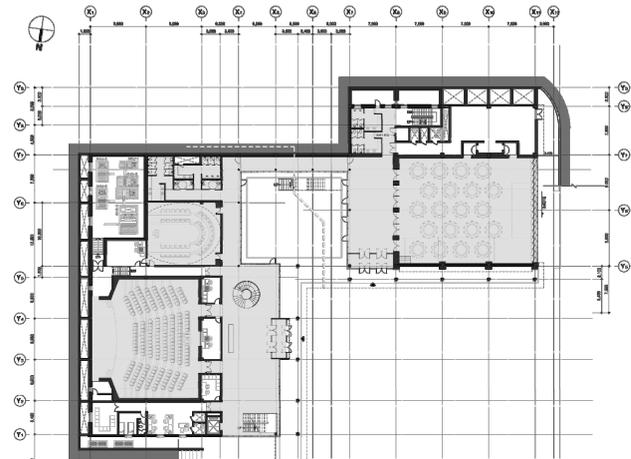
전면 바다쪽을 향해 재료를 달리하는 매스가 부유하는 형태로 건축물을 인지하게 되고 저층부의 회랑과 2층 부분의 내부회랑이 새로운 두개의 건축물을 하나처럼 감싸고 있다.

배치는 남겨진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을 서로 연결하여 바다쪽으로 열린 뷰를 갖는 ‘ㄷ’자 형태를 취했다. 이것은 건축물로 진입할 때 기존과는 다르게 중심적 공간



광장을 중심으로 기존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신축 교육관

기존건축물과 신축건물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중앙광장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새로운 인재개발원을 정회하고 있으며 새롭게 신축된 교육관은 기존 건물과 연결되나 모서리부분의 하부로 외부공간이 후면의 자연과 연결되어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다.



1층, 2층평면도

교육생은 교육이 끝나 실을 나오게 되면 전면 광장이나 중정을 바라보게 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들은 한곳에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

을 만들어 사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곳은 비워져 있지만 다양한 행태를 담을 수 있다. 교육생이 당당히 도착하여 환영 받는 곳이기도 하고 기념 사진도 찍고 타임캡슐로 묻고 하면서 점점 무형의 것이 축적되는 장소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 공간 주변부로 회랑과 공중보행통로의 동선공간을 둘러싸 배치하여 사용자들의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정면으로 다른 건물과는 조금 다르게 투명성을 가지는 건축물을 계획하여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는데 내부로 들어서면 하늘까지 열린 아트리움을 배치하여 세계의 건축물의 중심공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공간 역시 건물간의 이동동선이 타원의 외곽을 따라 만들어지는데 외부의 열린 공간에서 사용자들을 만나게 하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커뮤니티를 유도하고자 한 장치였다. 건축물들 사이에는 중정을 새로 계획했는데 이것도 또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장치로 앞의 경우와는 비슷한 의도로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집요하게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의 교육의 목적이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소통과 융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건축적 변주를 통해 이러한 것에 도움이 된다면 건축설계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하늘로 열린 로비

로비공간은 전체 인재개발원의 중앙에 위치하며 모든 동선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바다로는 투명하게 개방되어 있고 있고 산쪽으로는 계단식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어 진입 때는 하늘로 상승하는 자연스런 시선유도를 교육이 끝나고 실에서 나올 때는 바다 쪽을 바라보게 된다.



신축건물들 사이공간

지형에 순응하여 몇 개의 단으로 구성되며 동선공간으로 감싸져 있다. 교육시간 중간에 휴식이나 답소의 장소로서 활용되며 전면의 광장과는 다르게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한다.

건축하는 자세, 건축가

건축은 건축가나 소수에 의해 사유화되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 이에 건축가는 사유화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를 깨워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얘기한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앞서 말한 이유에 의해서 동의한다. 그러나 설계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은 종종 간과되기 쉽다. 몇몇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축물을 보면 어떠한 목적에서인지 몰라도 재료나 형태, 공간구성이 건축물이 처해진 조건과는 별개로 획일화되고 있는 성향들을 가진다든지 혹은 클라이언트의 최대이익을 반영하여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물이 되어버린 건물들이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클라이언트, 공공기관, 지역 커뮤니티, 시공자, 감리자 등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지고 이를 건축에 반영하고자 한다. 협의를 이루기 힘든 대척점에 서있는 욕구들도 많이 있는데 건축가의 책무가 이들을 조율하고 교집합을 찾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빠트리기 쉬운 것이 그 건축물의 최종 사용자들이다. 결론적으로 건축행위의 완성은 건축물의 완성이 아닌 사회,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건축물의 외관이나 프로그램은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의 결과물이며 만들어지는 순간 또 다른 의사소통의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어떠한 패턴이나 유형보다는 접근에 대한 본질성은 잃지 않고자 했던 위의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충실한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한다.